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3일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면서 남측과 협의하여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는 남북 관계의 시금석인 금강산 관광 사업의 존폐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 주목된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개발사업으로 중단된 이후 거의 10여 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프레임과 맞물리면서 재개의 기회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의 중단은 유엔 대북 제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지난 90년대 말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튼 사업으로 시작되면서 사업 대가가 관광 수익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되면서 대량 현금이 유

위기는 곧 기회다

입을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와 맞물려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우리 측이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대미 굴종 행위 등이라며 공개적인 비난의 수위를 높여 왔다. 이번 현지지도 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이 남북 간 공유물처럼, 남북 관계의 상징이나 축도인 것처럼 되어 있고 남북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잘 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그가 이래적으로 선입자들의 잘못된 의존 정책을 운운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이유는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현실과 연관이 깊다. 대북 제재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관광 사업은 무시할 수 없는 자금줄이다. 중국 등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한 해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완벽한 관광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

었지만 전 세계 유일의 폐쇄 국가 체험이 관광 테마가 되고 앞으로 관광 특구화 혹은 개방화된다면 북한 관광객들은 더 늘 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산 갈마나 마식령 지구에 공을 들여왔고 지난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재방문한 삼지연군은 백두산 관광과 연계된 관광특구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삼지연군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가장 많은 현지지도도 한 장소라고 할 만큼 정권 차원에서 공적화하는 곳이다. 이러한 북한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지구도 마냥 묵혀 놓을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이다.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시설 또한 문 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과 협의를 통해 남측 시설들을 철거하라고 하였다. 최고 지도자의 지시는 반드시 이행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은 이 문제 협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로서는 구체적인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완벽한 관광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

제한은 없다. 중국인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은 정당한 여행 경비를 지불하고 북한을 방문한다. 차체에 있을 북한과의 협의에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민간 차원의 관광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 또한 사업 대가로 대량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순수 관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이 다시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사유이기도 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남북이 합의할 수 있다면 관광 재개의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 동포들이 오갔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 하였다. 무조건 폐쇄하고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금강산 관광을 포함, 북한 지역 관광을 남북 교류 재개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열고 필요하다면 미국과 우방국들을 설득해야 한다. 동서독은 통일 전까지 수백만 명의 왕래가 있었다. 제한된 조건에서도 여행과 관광의 자유는 보장되었음을 상기하자.

종교칼럼

말과 행동, 생각



황성호
영암 신복성당 주임신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그렇게 찾아버린 습관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안 했으면 하는 행동을 하며, 옳고 그름의 힘을 잃어버려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습관으로 굳어 버린 말, 행동, 생각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습성에 젖어 있는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가? 쌍스러운 욕이나 타인을 흉보하는 것에 습관 되어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욕을 쉽게 뱉어 내고 못된 소문을 만들어 낼 것이다. 말의 힘은 대단하다. 어떤 말은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기도 한다.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

의 탐욕을 채우려다 보니 이 추태의 결과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예수는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람의 품성과 자질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주머니 속의 송곳',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사자어가 떠오른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 그 사람의 품성과 자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해외 연수를 떠났던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추태가 떠오른다. 그들의 추태는 예천군민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들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긴 버스 CCTV 영상에서 가이드에게 행하는 폭행 장면은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한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한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경경하듯 방관했던 다른 의원들의 모습에 더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렇게 거만하고 쌍스러우며 폭력적이었을까? 이들의 추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히 봉사직이었다. 그런데 권력을 차지하고 또 거기에 자신

과 돈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으로 고착되고 잘못된 생각이 옳지 못한 믿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예수는 구원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10월을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와 함께 '특별 전교의 달'로 선포하였다. 신앙은 신앙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해진다. 가톨릭 신자가 되겠다고 오는 분들에게 입교의 이유를 물으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입교했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정확한 전달, 올바른 전달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되고,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생각의 반성이 필요하다.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사람의 본질을 살아가도록 서로가 돕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중요하다. 타성에 젖기 쉽고 습관으로 굳어 버리기 쉬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자주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社說

지역 민심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을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예비 후보자는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안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광주·전남에서 의석수가 4석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구 의석은 광주가 8개, 전남이 10개이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광주는 6석, 전남은 8석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선거구제 개편 기준이 인구수이다 보니 하향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를 인근 지역구와 통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통합할 이 거론되는 지역구는 광주의 경우 동남을과 서구이며 전남은 여수갑과 여수 을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정치권의 위상 추락도 불을 보듯 뻔하며 지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 문제가 특히 심각한 곳은 농어촌 지역이다. 농어촌은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인

구수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하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수는 더 줄어들 우려가 크다. 전남의 경우 4개 행정구역을 묶은 선거구가 담양·함평·영광·장성고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두 곳인데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개편하면 5개 군이 1개 지역구가 되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런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토론회에서 지역민들이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지역민들은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단순인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말고 거주 면적도 산입해야 한다거나, 인구 하향선에 미달하는 지역을 위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 등이 단지 이익 집단의 목소리만으로 들리지 않는다. 마침 중앙선관위가 이날 말까지 농어촌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이라는데,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이를 선거구 획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금호타이어 이전 공장·고용 유지 전제돼야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전 대상 부지나 고용 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금호타이어 측이 제출한 '광주공장 부지 개발 계획안 검토 신청서'를 반려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산소 초촌동 현 광주공장 부지에 공장 이전 후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신청서에 이전 대상 부지는 물론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행정 절차를 위한 선결 과제로 회사 측이 공장외 부지 내 이전과 고용 유지 등을 담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금호타이어 측이 1000~2000억 원 규모의 공공 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부지 개발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회사 측에 수천억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금호타이어 측은 신청서 반려 이후에도 "광주시가 광주공장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면 그 일부를 팔아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전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광주공장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분위기가지만 금호타이어가 광주를 떠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담보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기존 부지 개발로 얻게 될 막대한 이익을 광안면도 도시계획 변경 협상 과정에서 감안하고 도로 조성 등을 위해 242억 원을 제공기로 한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개발 사례처럼 공공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금호타이어는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이전 관련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 국민이 가장 즐겨 먹는 채소는 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이다. 배추는 애초 지중해 채소로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추와 관련된 중국 문헌의 기록들은 기원전 주·한·진나라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나라 시대 '남방초목상'의 기록이 최초이고, '제민요술'에는 배추 식는 법이 적혀 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7세기 중국 북부 지방의 '순무'와 중국 남부의 '송'이 자연 교잡돼 나타난 것이 중국 배추라는 것이다. 이후 16세기 일본교 배추, 18세기 결국 배추가 등장했다. 결국 배추는 중국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結球)은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배추에 대한 기록은 고려 고종 때 발간된 '향약구급방'이 최초이다. 배추의 원형을 뜻하는 '송'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훈몽자회'를 비롯해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 배추가 소개돼 있다. 배추는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 시스템 등이 풍부한 영양 식품이다. 녹색 잎

부위에 비타민A·C가 풍부해 1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 비타민C를 채울 수 있다. 배추의 구수한 맛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스테인에서 나오는데 항산화 및 해독 작용을 하고 숙취 해소를 도와준다. 무엇보다 배추는 항암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트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영양이 풍부한 배추는 중국과 한국에서 재를 윤이나 좋은 소식을 상징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결혼하는 자식들이 부유하고 장수하라는 의미로 육으로 만든 '육배추'를 혼수예물로 주는 풍습이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대만 국보 1호는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육배추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층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육배추 브로치를 착용하는가 하면 배추 짬뽕 요리부터 태풍으로 여겨졌다. 올 가을 세 차례의 태풍으로 해남 지역 배추의 절반가량이 썩었다고 한다. 상품성이 떨어져 수확 대신 배추밭 전체를 갈아엎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농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배려가 절실하다. /채희송 사회부장 chae@

기 고

미래 해양수산 산업과 기상 정보 융합 서비스



신영권
완도군청 미래해양사업단장

대한민국 청정 바다 수도인 완도군은 우리나라 수산물 최대 생산 지역으로 해조류는 전국 생산량의 40%, 전복은 75%를 차지하고 있다. 해조류와 전복 등의 양식 산업은 작업 환경이 주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고수온, 태풍, 적조, 이상 조류, 폭우 등 5대 리스크는 어업 활동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해양수산업과 같은 날씨 민감 산업에서는 기후 변화 적응 대책 및 산업 경쟁력 향상 등에 있어서 기상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기상 정보 수요로 인해 기상청에서는 날씨 정보 뿐만 아니라 타분야와 융합하여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완도군은 기상 정보를 지역의 미래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해양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깨끗한 공기와 청정한 바다는 완도군의 큰 자산이다.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건강 산업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청정한 해양 기후, 해수, 해조류 등의 해양 자원 역시 단순한 관광·레저 분야에서 심신(心身)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해양 치유(웰스케어)로 활용 분야가 넓혀지고 있다. 해양 치유 산업은 바다와 복지를 산업으로 연결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양 환경, 해수, 해사(모래), 해니(머드), 해조류, 염지하수 등을 활용하여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정신 건강 질환자 등의 치유를 돕는 분야이다. 완도군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해양 치유 산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해양 치유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해양 치유는 바다의 해양 환경을 이용한 특성상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해양의

기후 환경에 따라 치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양의 기상 기후 정보와 건강 산업을 결합한 건강 기후 지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건강 기후 지수 개발을 포함한 완도 해양 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 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기상청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건강 기후 지수는 건구 온도, 풍속, 상대 습도 등 여러 가지 기상 요소를 이용하여 고온과 저온에서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평가와 인체의 생리 지표 지수가 추가되어 완도에서 시범적으로 개발되어 운영할 기상 융합 서비스이다. 완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풀뿌리 산업인 농·수·축산업과 미래 산업인 해양 치유, 해양 바이오 헬스, 해양 관광 산업 등은 어느 한 분야도 기상과 연관이 적은 분야가 없다. 기상 정보의 융합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는 산업이 발전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전략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상 정보를 활용한 융합 서비스는 그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3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